

세계 평화 파고다

세계 평화 파고다는 미얀마 불교회가 인정한 일본 유일의 미얀마식 사원입니다. 세계 평화와 모지 항구에서 출병하여 전사한 병사들을 위령하는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간몬 해협을 내려다보는 메카리 공원에 있습니다. 높이 27m의 불탑이 특징이며, 입구 위에는 선명한 빛깔의 공작 스테인드글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등록 유형문화재이기도 합니다.

1958년에 지어진 이 파고다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중에 미얀마(당시는 버마)에 파견된 전직 군인 이치하라 미즈마로(1917년생)가 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죽음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목격한 이치하라는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고 세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 상좌부 불교의 불탑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57년, 미얀마에서 일본을 방문한 승려들이 이치하라의 구상을 알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남기를 자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의 위령비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200만 명의 일본군이 모지 항구에서 전쟁터로 파견되었으며 약 20만 명이 버마 전선(1942~1945)에 참가했습니다. 버마에서 나온 일본군 사상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며, 적어도 18만 명의 일본 국민이 버마에서 사망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운 좋게도 귀국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지는 상실, 생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궁극적인 비극의 상징으로서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버마의 민간인들에서도 역시 끔찍한 인명 피해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본군 희생자 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종결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희생된 것이 양국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파고다는 양국의 적대 관계가 끝난 뒤 불과 13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양국의 친선을 확립하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1958년 9월, 파고다는 미얀마 건축가의 지휘 아래 현지 목수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총공사비는 4,000 만 엔으로 버마 불교회와 모지를 비롯한 일본 측의 기부금으로 나뉘었습니다.

파고다에는 적어도 3 명의 미얀마 승려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은 전직 군인과 전사자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기부와 적은 입장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파고다는 과거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모지 시민의 선의와 자선 활동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부의 미얀마식 디자인에 주목

파고다는 전형적인 미얀마식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단 중앙의 불상은 석가여래를 미얀마의 불교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왼쪽에는 전사한 병사의 위패 50 개가 놓여 있습니다. 미얀마의 해변에서 가져온 소박한 돌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과 재회하지 못한 많은 가족의 슬픔을 상기시킵니다. 매년 가을에는 위령제가 열립니다.